

슬라이트하임 신앙고백(재세례파, 1527)*

- 7개 조항에 대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형제애적 연합

박경수(장로회신학대학교, 교회사)

표지 글 [인사말]

우리 아버지로부터 오는 기쁨, 평화, 자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속죄 (atonement)¹⁾를 통해, 성령—아버지께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힘과 위로를 주고 마지막 때까지 어떠한 고난에도 신실함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 보내신 분이다—의 은사와 더불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과 모든 빛의 자

* 본 글은 칼뱅과 재세례파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16세기 종교개혁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위해서도 중요한 재세례파의 슬라이트하임 신앙고백을 소개하는 것이다. 번역의 원문은 Global Anabaptist Mennonite Encyclopedia Online(<http://www.gameo.org/>)에 수록되어 있다. 재세례파의 슬라이트하임 신앙고백이 칼뱅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자세하게 알기 위해서는 필자의 최근 논문 “칼뱅과 재세례파의 관계: 역사적·신학적 관점에서 본 비교연구,” 『한국교회사학회지』 35집 (2013): 77-104를 참고해주길 바란다.

1) 미카엘 자틀러(Michael Sattler)의 사상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는 Vereinigung으로, 이것은 문맥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번역되어야 한다. 제목에서 우리는 이것을 “연합”으로 번역하지만, 여기 인사말에서는 “화해”나 “속죄”로 번역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울 것이고, 나중에 본 문에서 수동태로 써어졌을 때는 “일치에로 인도 된다”는 의미를 지니게 될 것이다. 따라서 똑같은 단어가 예수 그리스도의 화해의 사역, 형제들이 한마음을 갖게 되는 과정, 형제들이 이루어낸 일치의 상태, 그리고 그들이 도달한 일치에 대해 진술하는 문서에 대해서 모두 사용될 수 있다. 헤스트(Heinold Fast)는 여기서 이 단어가 “그리스도의 보혈”과 관련하여 “친교”를 의미할 수 있다고 제안한다. 고전 10:16 참조.

너들에게 그리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지정하신(placed)²⁾ 대로 각처에 흩어져 살면서 한 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아버지 안에서 한 마음으로 모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기를.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와 마음의 평화가 넘치기를. 아멘.

주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여, 우리는 언제나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여러분의 위안과 (때때로 혼란 가운데 있는) 여러분의 양심의 확신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항상 우리에게서 이방인³⁾과 같이 분리되거나 거의 완전하게 배제되는 일 없이, 그리스도에게 접목된 참된 자체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은 인내와 자기 자신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있으며 거룩한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열망 안에서 우리와 연합한 자들이다.

사탄이 얼마나 다양한 간교함으로 우리를 미혹하여, 우리 안에서 자비와 은혜로 일부 시작된 하나님의 사역을 파괴하고 무너뜨렸는지 명백하다. 하지만 우리 영혼의 참된 목자이시며 우리 안에 이 일을 시작하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영광과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마지막 때까지 동일한 것을 우리

2) 혹은 문자적으로 “명하신”(ordered)으로 번역할 수 있다; 웬거(J. C. Wenger)의 번역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정하신(ordained) 대로 각처로 흩어져”는 “ordained”라는 단어가 성례전적 혹은 예정론적인 함축 없이 이해될 수 있다면 좋은 의역이다.

3) “이방인”(aliens) 혹은 “외국인”(foreigners)이라는 이 단어를 크래머(Cramer)는 지리적 혹은 정치적인 의미에서 해석하여, 스위스인이 아닌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았다(BRN, 605, note 1). 키빗(Kiwiet)도 의심의 여지없이 똑같은 의미로 받아들이면서, 더욱 과격하게 슬라이트하임에서 스위스 재세례파들이 독일 재세례파들과의 사귐을 깨트렸다고 말하고 있다(Pilgram Marbeck, Kassel, 1959, 44). 이러한 해석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이유에서 말이 안 되는 해석이다. 첫째, 1520년대 당시에는 분명한 지리적인 국경선에 의해 나뉘는 그런 강력한 의미의 국적 개념이 없었다. 둘째, 모임의 지도자들인 자틀러(M. Sattler)와 로이블린(W. Reublin) 모두 스위스인이 아니었다. 셋째, 슬라이트하임이 염두에 두었던 이방인들은 분명히 대부분 스위스의 리버틴들, 다시 말해 장크트갈렌의 열십당들(H. Fast “Die Sonderstellung der Täufer in St. Gallen und Appenzell,” Zwingiana XI, 1960, 223 ff.)과 해처(Ludwig Hätzer)였다. 아마도 덴크(H. Denck) 혹은 부처(M. Bucer)도 포함되었겠지만 말이다. 오히려 이 단어는 아주 다른 본문과 관련되어 있다. 이것은 앱 2:12와 19에 대한 하나님의 임시로서, 이전에 불신앙으로 인해 멀어졌던 사람들에게 임하는 복음의 화해시키는 능력을 중언하고 있는 것이다.

에게 명하시고 가르치실⁴⁾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여, 주 안에서 랑덴 근처의⁵⁾ 슬라이트하임에 모인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몇 가지 항목들을 발표하는 바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충실한 자녀, 아들과 딸로서 변치 않고 주 안에 거하면서 지금까지도 그랬듯이 앞으로도 모든 것에서 세상과 구별된 자로 살기로 마음을 합하였으며, (오직 하나님께만 찬송과 영광을 돌릴 일은) 모든 형제들이 아무런 이견 없이 완전히 평화 가운데 이 일을 이루었다는 것이다. 바로 이 점에서 우리는 한 몸을 이루신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공동의 그리스도가 성령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느꼈다. 바울이 말한 대로, 주님은 평화의 주님이지 다툼의 주님이 아니기 때문이다.⁶⁾ 여러분은 이것이 어떤 신조 항목으로 공식화되었는지 알기 위해 (다음의 내용을) 살펴보고 주목해야 할 것이다.

우리 가운데 일부 그릇된 형제들이 아주 엄청난 범죄를 들여왔고,⁷⁾ 그로

4) “명하다”(direct)와 “가르치다”(teach)는 “동일한 것,” 다시 말해 “우리 안에서 일부 시작된 하나님의 사역”을 그 목적어로 지닌다. 웬거(Wenger)의 의역, “동일한 것을 명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는 더 부드러운 번역이기는 하지만, 우리 안에서 “일부 시작되고,” “무너지고,” “명해지고,” “가르쳐지는”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놀라운 이미지를 약화시킨다. 그렇지만 원문이 가르치다(teach)보다 오히려 인도하다(guide)로 읽혀질 수 있다는 뷔머(Böhmer)의 추측은 근거 있는 추측이다.

5) “Langer Randen”과 “Hoher Randen”은 슬라이트하임을 내려다보고 있는 구릉지대로, 현대 독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슬라이트하임이 접경지역(정치적인 의미의 국경지대)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은 아니다. 원문에는 “Schlatten am Randen”이라 되어 있다. 남부 독일의 6개는 족히 넘는 마을들 이름을 Schlatt, Schlatt, Schlatten이 포함되어 있다. 바덴의 엔센 근처의 한 마을도 “am Randen”으로 밝혀졌으며, 최근까지도 몇몇 사람들은 이곳을 7개 조항이 만들어진 지역이라고 주장하였다. 지금은 샤프하우젠 부근이 슬라이트하임이라고 믿을 만한 증거들이 충분하게 있으며 이것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다.

6) 고전 14:33.

7) H. W. Meihuizen은 최근 “슬라이트하임 신앙고백에서 언급하는 ‘그릇된 형제들’이 누구였는가?”라는 질문을 매우 신중하게 제기하였다.(MQR, XLI, 1967, 200ff) Meihuizen이 취한 방식은 종교개혁의 전체적인 그림을 살펴보는 것, 즉 종교개혁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범주의 재세례파들까지, 특히 최근에 자틀러가 떠나 온 스트라스부르의 재세례파들까지 모두 개관하는 것이다. 이들의 신학적인 입장을 슬라이트하임 신앙고백과 비교한 다음, Meihuizen은 슬라이트하임 신

인해 몇몇 사람들이 성령과 그리스도의 자유를 행하고 지킨다고 생각하면서 신앙을 떠났다. 하지만 그들은 전리에 미치지 못하고 (마땅한 정죄를 받아) 음탕함과 육체의 방종에 빠지고 말았다. 그들은 믿음과 사랑이 모든 것을 행하도록 허용하며, 자신들은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자신들을 해하거나 정죄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지체인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늘 아버지를 믿는 신앙이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주목하라. 신앙은 이런 거짓 형제자매들이 행하고 가르치는 것과 같은 것들을 만들어 내거나 초래하지 않는다. 여러분을 지켜 이런 자들을 경계하라. 이들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 자신들의 아비인 마귀를 섬기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러분의 경우는 다르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육체와 더불어 정욕과 욕망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이다.⁸⁾ 여러분은 내⁹⁾ 말

양고백이 Denck, Hubmaier, Hut, Hätzer, Bucer, Capito에 대한 반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이 모임이 초대받지 못한 특정의 몇몇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겨냥하고 있었다는 것을 온전히 납득하지 않고서도, 우리는 이와 같은 견해표명에 동의할 수 있다. 만약 여기서 말하는 것이 특정한 한 사람을 의미한다면, 그것은 자틀러와 얼마 전까지 스트라스부르에서 함께 있었던 자로 유일하게 리버틴 경향이 강한 Hätzer일 확률이 가장 높다. 현재 우리의 목적이 이 문서의 의미를 밝히는 것인 만큼, (Meihuizen과 일치하는) 내적인 증거를 분명하게 하는 것으로 죽할 것이다. 첫째로, 이전에 정죄를 받은 몇몇 견해에 혼혹되었던 일부 사람들이 “하나로 연합되는” 사건의 참여자가 되기 위해 슬라이트하임에 참석했다는 사실로 볼 때, 표지 글에서 언급하는 “그릇된 형제들”은 단지 관주도적 주류 개혁자들뿐 아니라 적어도 재세례파 안에 있는 일부 사람들까지 포함한다는 것이다. 둘째, 7개 조항은 개혁파로부터 근본적인 신학적 분리를 보이는 점들, 즉 세례, 과문과 성만찬의 관계, 칼, 맹세에 대해 매우 강조하고 있다. 이 목록이 스트라스부르에서 나온 문서와 잘 대비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자틀러가 스트라스부르에 있으면서 이미 그 개요를 작성했으리라고 짐작할 수 있다. 셋째, 표지 글과 7개 조항의 병렬적인 구조 안에서, 자틀러는 취리히-슬라이트하임 경향과 차이를 보였던 주변적인 재세례파 및 영성주의자들의 견해와 복음주의적인 개혁자들의 견해 사이의 내적인 연결성을 단언하고 있다.

8) 갈 5:24.

9) 여기서 일인칭 주어가 사용된 것은 어떤 개인이 아마도 모임이 끝난 뒤에 이 인사말을 썼다는 것을 말해준다.

을 잘 이해하고, 우리가 말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고 있다. 그들은 그릇된 길에 빠진 자들이니 그들을 멀리하라. 그들이 회개에 이르는 자식을 얻도록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라.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는 하나님과 그 아들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들어선 이 길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해 주기를 바란다. 아멘.¹⁰⁾

7개 조항

우리가 논의를 통해 의견의 일치를 이룬 항목들은 다음과 같다: 세례, 출교, 뺑을 떼는 일, 혐오스러운 것으로부터의 분리, 교회의 목사들, 칼의 사용, 맹세.

I. 세례에 대하여. 세례는 회개와 삶의 개선에 대해 가르침을 받은 자들로 자신들의 죄가 그리스도를 통해 사해진다는 것을 참으로 믿는 모든 사람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가운데 살기를 소망하면서 죽어 그분과 함께 묻혀 그분과 함께 부활하기를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을 이해하면서 자발적으로 우리에게 세례를 받고자 요청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여기서 모든 유아세례는 제외된다. 유아세례는 교황이 만든 가장 혐오스러운 제도이다. 여러분은 사도들의 글과 의식을 통해 세례에 관한 여러 논거와 계명을 잘 알고 있다.¹¹⁾ 우리는 단순하면서도 단호하게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그 내용을 그대로 고수하고자 한다.

10) 편지 형식의 표지 글이 여기서 끝을 맺는다. 이 표지 글은 베른 사본에는 들어 있지 않고, 7개 조항은 아마도 거의 대부분 이 표지 글 없이 유통되었을 것이다.

11) 마 28:19; 막 16:6; 행 2:38; 8:36; 16:31-33; 19:4.

II. 우리는 출교에 관해 다음과 같이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출교는 주님께 헌신하여 주님이 명하신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의 한 품에 속한 자체가 되어 형제와 자매라 불리게 된 사람들이 무심코 현혹되어 얼마간 실책과 죄를 범했을 때 행사될 수 있다.¹²⁾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대로(마 18) 두 번까지는 조용히 사적으로 경고하지만 세 번째는 전체 회중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훈계를 하게 된다. 그런데 이 일은 성령께서 정하신 대로 떡을 떼기 전에 행해짐으로써,¹³⁾ 우리 모두가 같은 영 안에서 그리고 같은 사랑 안에서 같은 떡을 떼고 같은 잔을 마실 수 있을 것이다.

III. 우리는 떡을 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합의를 이루었다. 그리스도의 찢겨진 몸을 기억하면서 같은 떡을 떼기를 소망하는 모든 사람들과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를 기념하면서 같은 음료를 마시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은 사전에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의 한 품 안에서, 다시 말해 그리스도를 수장으로 하는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만 한다. 바울이 말하는 대로,¹⁴⁾ 우리는 주님이 베푸신 식탁과 사탄이 베푸는 식탁에 동시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주님의 잔과 사탄의 잔을 동시에 받아 마실 수 없다. 다시 말해 어둠의 죽은 행위와 교제를 나누는 사람들은 빛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러므로

12) 이 구절은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 “무심코 현혹되어”는 죄에 빠지는 것을 묘사한 것으로, “얼마간 실책과 죄를 범한다”는 내용과 대구를 이룬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계자에게 있어 죄가 부분적으로 무지와 부주의의 문제라는 것을 의미한다. Cramer와 Jenny는 모든 죄가 얼마간 무심코 저질러진다고, 즉 사람들이 죄가 되는 결정을 할 때 미혹당해서 그 중대성을 충분히 알아채지 못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려고 애썼다. 칼뱅은 (프랑스어로 번역된 글의 문장 구성에 근거하여) 이 본문을 잘못 이해하여, 재세례파들이 용서받을 수 있는 죄와 용서받지 못할 죄를 구별하고 있고, 오직 무심코 행해진 죄만이 회중의 화해의 관심 범주에 든다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13) 마 5:23; 고전 11장.

14) 고전 10:21.

사탄과 세상을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의해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다. 악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은 모두 선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과 더불어 같은 믿음, 같은 세례, 같은 성령, 같은 품을 이루도록 이끄시는 한 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공유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라도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한 둉어리의 떡이 될 수 없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진정으로 떡을 떼기를 원하면 참으로 그렇게 되어야만 한다.¹⁵⁾

IV. 우리는 분리에 대해 이렇게 합의했다. 사탄이 이 세상에 심어 놓은 악과 사악함으로부터 분리되어야 하는데, 여기서 우리는 그들과¹⁶⁾ 어떠한 교제도 해서는 안 되고, 그들의 가증한 짓거리들에 미혹되어 행해서도 안 된다. 믿음의 순종 안으로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그분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이 매우 싫어하시는 바이다. 그러므로 그들로부터는 가증스러운 것들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자라나거나 생겨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피조물들은 선과 악, 신앙과 불신앙, 어둠과 빛, 세상에 속한 사람과 세상 밖의 사람들, 하나님의 전과 우상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라는 두 범주에 들지 않는 것이 없고, 이 두 범주는 서로 간에 아무

15) 성례의 효력을 대한 대부분의 에큐메니칼 논쟁은 집례자의 성례전적인 지위에 초점을 두거나 상징들의 의미에 대한 교리적 해석에 관심을 두고 있다. 친밀한 성만찬(close communion)이라는 재세례파의 견해는 성례보다는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 지적되어야 한다. 성례가 그 효력을 잃는 것은 권위를 갖추지 못한 집례자나 성례에 대한 불충분한 이해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진정한 공동체가 이루어지지 않아 성례가 효력을 잃는 것이다.

16) 여기서 “세상”이 “그들”로 바뀌는 데 주목하라. “세상”이라는 말은 중생하지 못한 부류의 사람들과 아무런 관계없이 사용되지 않는다.

런 관련이 없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명령 또한 명확하여, 그분은 우리에게 악한 것에서 떨어져 나오라고 명하시고, 이렇게 해서 그분은 우리나라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아들과 딸이 되는 것이다.¹⁷⁾

더욱이 그분은 우리에게 바벨론과 세속의 이집트에서 나오라고, 그리하여 주님께서 그들에게 내리실 고난과 고통을 같이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권고하신다.¹⁸⁾

이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하나님과 연합되지 않은 것들은 모두 우리가 피해야 할 가증스러운 것에 지나지 않는다. 것을 배워야 한다. 이것들이 의미하는 것은 모든 로마가톨릭적인 행위들과 여전히 가톨릭적인 속성을 버리지 못하고 보존하고 있는 행위들(popish and repopish works)¹⁹⁾과 우상숭배, 모임들, 교회출석,²⁰⁾ 술집, 불신앙적인 보증과 서약들, 그리고 이런 종류의 다른 일들

17) 고후 6:17.

18) 계 18:4 이하.

19) 접두사 wider는 "counter" 혹은 "re-"로 이해할 수 있다. 물론 이 두 가지 의미가 모두 스트라스부르와 스위스 도시들의 개혁교회들에 적용될 수 있어, 여기서는 그들이 anti-popish(로마교회와 단절함)하고 동시에 re-popish(기톨릭의 특질들을 보유하고 있거나 회복하고 있음)하다는 의미가 된다. 초기의 번역에서는 "papist and anti-papist"를 주로 선택했지만 다른 해석이 그 의미를 보다 예리하게 밝히고 있어 츠빙글리의 번역도 이를 지지하였다. 따라서 새로운 프로테스탄트 교회들이 기톨릭의 잘못된 점들을 얼마나 좋아하고 있었다는 주장은 1527년 초에 이미 의심의 여지가 없는 일로 받아들여졌다.

20) 여기에서 말하는 교회출석(Kirchgang)이란 심정적으로는 재세례파에게 동조하면서도 공개적인 비난을 모면하기 위해 국가교회의 의식들에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의 행태를 말하는 것이다. 국가교회에 대한 가혹한 비판은 16세기의 역사적 상황 하에서 이해해야만 한다. 당시 대부분의 국가교회의 성직자들은 부덕하고 세속적인 사람들이었다. 모든 시민들은 유아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국가교회의 일원으로 간주되었다. 1527년 쿠리히에서도 국가교회 지도자들의 전적인 동의하에서 스위스형제단에게 사형선고가 내려졌다. 자틀러도

을 뜻하는데, 이런 것들은 세상으로부터는 높은 평가를 받지만 세속적인 것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명백히 반(反)하는 것들로써 이 세상의 모든 불법의 형태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 이 모든 것들에서 우리는 분리되어 이런 것들과 아무런 관계도 맺지 말아야 한다. 이것들은 육체의 노예였던 우리를 자유하게 하사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예배하기에 합당한 사람들로 삼아 주신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우리가 미움 받을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가증스러운 것들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검, 갑옷과 투구와 같은 악마적인 폭력의 무기들을 우리에게서 확실히 제해 버리고, 또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²¹⁾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친구를 보호하고 적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사용하는 것도 모두 금해야 할 것이다.

V.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의 목사들에 편해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교회의 목사는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 대로,²²⁾ 분명 신앙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듣는 사람이어야 한다. 목사의 직무는 읽고 권고하고 가르치고, 경계시키고, 훈계하고, 때로는 파문을 행하며, 기도와 땀을 땀에서 형제자매들을 잘 인도하고, 모든 일들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잘 살펴 그것이 세워지고 발전함으로써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친양되고 영예롭게 되며 조롱하는 자들의 입이 다물어지게 하는 것이다.

슬라이트하임 모임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화형을 당하였다.

21) 마 5:39.

22) 둘진 3:7.

목사가 도움을 필요로 할 때 그를 선택했던 회중은 그를 도와, 복음을 섬기는 목사가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복음으로 살 수 있게 해야 한다.²³⁾ 목사가 견책을 받을 만한 일을 행했을 때는 두세 사람의 증언이 없이는 그에게 어떠한 일도 행해서는 안 된다. 만일 목사가 죄를 범하면 공개적으로 질책을 받도록 해서 나머지 사람들이 두려움을 갖도록 해야 한다.²⁴⁾

만약 목사가 내쫓기거나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²⁵⁾ 주님께 인도되어야 한다면, 그와 동시에 곧바로 다른 사람을 그 자리에 인수함으로써, 하나님의 어린 양들이 흩어지지 않고 보존되고 위로받도록 해야 한다.

VI. 우리는 칼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칼은 그리스도의 완전 바깥에 하나님으로 정하여 두신 것이다. 칼은 사악한 자들을 벌하고 죽이며 선한 자들을 지키고 보호하여 준다. 칼은 율법에서²⁶⁾ 악한 자들의 처벌과 죽임을 위해 제정되었고, 세속의 통치자들이 세워진 것은 바로 그것을 행사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완전하심 안에서는 오직 출교가 실시되는데 이것은 육체를 죽이는 일 없이²⁷⁾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훈계하거나 배척함으로써 더 이상 죄를 범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명하기 위해서 행 사되는 것이다.

23) 고전 9:14.

24) 딤전 5:20.

25) “십자가”는 이 당시에 이미 순교를 가리키는 일반적인 표현 혹은 “기술적인 용어”였다.

26) 여기서 “율법”은 구체적으로 구약성서를 가리킨다.

27) “육체를 죽이는 일 없이”는 가장 오래된 사본의 분명한 표현이다. 하지만 츠빙글리는 이 구절을 “육체의 죽음을 향해”로 이해하면서 고린도전서 5장에 대한 그럴 듯한 암시를 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물을 것이다. 첫째로, 그리스도인이 선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혹은 사랑을 위해서 악한 자들에 대항하여 칼을 사용할 수 있는가 질문할 것이다. 그에 대한 우리의 일치된 답은 이렇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자신에게서 배우라고 가르치고 명하시면서, 그 자신은 마음이 은유하고 겸손해서 우리의 영혼이 쉼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다.²⁸⁾ 또한 그리스도께서는 간음하다가 불잡힌 여인에게,²⁹⁾ 아버지의 율법에 따라 들을 맞아 마땅하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그러면서도 그리스도는 “아버지가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행한다”고 말씀하신다), 자비와 용서와 권고로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신다. 바로 이런 태도가 출교의 규율에 따라 우리가 취해야 할 방향이다.

둘째로, 칼의 사용과 관련해서, 불신자들이 서로 간에 겪는 세속적인 문제들에 관한 논쟁과 다툼에 대해 그리스도인들이 판단을 내리는 것이 좋은지를 묻는 질문이 있다. 그에 대한 대답은, 그리스도가 유산 문제에 대해 형제들 사이에서 판단을 내리기를 원치 않으시고 그것을 거부하셨다는 것이다.³⁰⁾ 그러므로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할 것이다.

셋째로, 칼의 사용과 관련해서, 그리스도인이 정부의 관리로 선출되면 그가 그 일을 감당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이다. 이에 대한 답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고자 했지만 그분은 피하셨고 그것을 아버지가 정하신 일로 보지 않으셨다는 것이다.³¹⁾ 그리므로 우리도 그

28) 마 11:29.

29) 요 8:11.

30) 뉴 12:13.

31) “아버지가 정하신 일로 보지 않으셨다”에 대해서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비록 국가의 존

분이 하신 대로 행하고 그분을 쫓아서, 어둠 가운데 걷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그분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³²⁾고 말씀하시기 때문이다. 주님은 “이 세상의 군주들은 세상 위에 군림하지만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³³⁾고 말씀하시면서 칼에 의한 폭력을 더욱 금하신다. 게다가 바울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기 아들의 형상을 입도록 하셨다”³⁴⁾고 말한다. 베드로 또한 “그리스도가 (다스리신 것이 아니라) 고난을 받고 너희에게 모범을 남겨 너희로 하여금 그 발자취를 따르게 하셨다”³⁵⁾고 말한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다음과 같은 점들에서 그리스도인이 행정관이 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부의 통치는 육체를 따르는 것이지만 그리스도인들의 통치는 성령을 따르는 것이고, 그들의 집과 거주지는 이 세상에 속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의 집은 하늘에 있으며, 그들의 시민권은 이 세상에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사실이다.³⁶⁾ 그들이 싸우는 무기는 오직 육적이고 또 육체를 대항할 뿐이지만 그리스도인들의 무기는 영적이고 사탄의 요새를 상대로 한다. 세상 사람들은 철과 동으로 무장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갑주, 즉 진리, 의로움, 평화, 믿음,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한다. 한마디로 말해, 우리의 머리 되신 그리스

제가 신적인 법령이지만 예수께서는 왕으로서 나라를 섬기는 일을 자기 자신의 의무로 고려하지 않았다는 의미일 수 있다. 보다 그럴 듯한 해석은 예수가 자신을 왕으로 삼고자 하는 사람들의 행동을 아버지께서 평하신 것이라고 평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32) 마 16:24.

33) 마 20:25.

34) 롬 8:30.

35) 벤전 2:21.

36) 빌 3:20.

도가 뜻하시는 대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인 우리들도 그분을 통해 같은 마음을 품어, 몸이 나뉘어 고통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에 대해 기록된 그대로인 것처럼 그리스도의 지체들도 그와 같이 되어서, 그분의 몸이 온전하게 하나가 되어 진보와 발전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어떤 왕국이든지 내부적으로 분열이 있으면 망하고 말 것이다.³⁷⁾

VII. 우리는 맹세에 관해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맹세는 다투거나 혹은 약속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확인이다. 율법에서 맹세는 오직 하나님 이름으로만, 참되고 거짓 없이 하라고 명하고 있다. 율법의 완성을 가르치신 그리스도는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진실한 것이든 거짓된 것이든, 하늘에 대고 하는 것이든 땅에 대고 하는 것이든, 예루살렘으로 하는 것이든 우리 머리로 하는 것이든 일체의 맹세를 하지 말라고 금하신다. 그리고 그분은 계속해서 맹세하지 말아야 할 이유에 대해 “너는 머리카락 하나도 희게나 절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신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알다시피 일체의 맹세가 금지되었다. 우리는 우리가 맹세하면서 약속한 것들을 이행할 수 없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아주 작은 부분도 바꿀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다.³⁸⁾

하나님의 단순한 명령을 믿지 못하고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선을 행하고 그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약속했을 때) 하나님은 자신이 하나님인가 때문에 자기 스스로에게 대고 아브라함에게 맹세

37) 마 12:25.

38) 마 5:34-37.

를 했는데, 왜 나는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약속할 때 맹세해서는 안 되는 것인가?” 이에 대한 답은 성서가 말하는 것을 들으라는 것이다.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의 상속자들에게 자신의 뜻이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더욱 풍성하게 밝혀주고 싶은 마음에서 맹세라는 말을 거기 집어넣어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³⁹⁾ 우리로 하여금 변하지 않는 두 가지 사실로 인해 보다 큰 위로를 받을 수 있게 하신 것이다.” 다음 구절의 의미에 주목해 보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그 자신이 우리에게 금하시는 것이라도 다 행할 수 있는 힘이 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맹세를 하셨다. 성서는 그것이 그분의 경륜이 불변한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한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그 누구도 그분의 뜻에 대항하거나 그것을 방해할 수 없고, 그래서 그분은 자신의 맹세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앞에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우리의 맹세를 지켜 수행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맹세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또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이 구약성서에서 명하신 맹세를 신약성서에서 금하셨을 리는 없고, 단지 하늘, 땅, 예루살렘, 그리고 우리 머리에 대고 맹세하는 것을 금하신 것뿐이라고 말한다. 이에 대한 답은 성서가 말하는 바를 들으라는 것이다. 하늘에 대고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거기 앉으신 그분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다.⁴⁰⁾ 단지 하나님의 보좌인 하늘에 대고 맹세하는 것도 금하고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 자신을 두고 하는 맹세는 얼마나 더 강력하게 금지되어야 하겠는가! 눈 먼 어리석은 자들이여, 보좌가 큰가 아니면 거기에 앉으신

그분이 더 큰가?

혹자는 진리를 위해 하나님 이름을 거론하는 것이 그렇게 잘못된 것이라면, 사도 베드로와 바울 또한 맹세를 한 것은 어떻게 된 것인가라고 말한다.⁴¹⁾ 이에 대한 답은 베드로와 바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 즉 우리가 장차 받게 되는 그분에 대해 중언하는 것일 뿐이라는 것이다. 그들 자신은 아무것도 약속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중언하는 것과 맹세하는 것은 염연히 다른 것이다. 어떤 사람이 맹세를 할 때는 무엇보다도 미래의 것을 약속하는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약속으로 주어진 그리스도를 우리가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받게 되는 것처럼 말이다. 그렇지만 사람이 중언을 할 때는 그것이 선한 것인든 악한 것인든 현재에 관해 중언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시므온은 마리아에게 그리스도에 관해 말하면서 이렇게 중언한다.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폐하고 흥함을 위하여, 그리고 비방을 받는 표적으로 세움을 받았다.”⁴²⁾

그리스도께서 “너희는 예면 예라 하고, 아니면 아니라고 말할 것이니. 여기에 무엇이든 덧붙여진 것은 악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실 때도 같은 것을 가르치고 있다. 주님은 우리가 예와 아니오로 말해서, 누구도 주님께서 그 일을 허용하셨다고 생각하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하신다. 그리스도는 단순히 예와 아니오인 까닭에, 그분을 찾는 모든 사람들은 그분의 말씀을 쉽게 이해할 것이다. 아멘.

41) 츠빙글리의 번역본은 여기에 “맹세하는 것이 나쁘다면, 혹은 진리를 확증하기 위해 주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잘못이라면,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도 죄를 범한 것이 된다. 이들도 맹세하였기 때문이다.”라는 주장을 적어 넣고 있다.

42) 루 2:34.

39) 히 6:7 이하.

40) 마 5:35.

표지 글

주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여, 이 항목들은 몇몇 형제들이 이전에 잘못 이해하여 다소간에 참된 의미를 품지 않았던 것들로, 이로 인해 많은 연약한 양심들이 혼란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크게 훼손되었다. 이런 이유로 우리가 주 안에서 일치를 이루는 것이 절실히 필요했고, 결국 그 일이 실현되었다.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린다!

이제 여러분은 우리를 통해 지금 밝히 드러난 하나님의 뜻을 풍성하게 이해하게 되었으므로, 이제 알게 된 하나님의 이 뜻을 확고하게 꾸준히 성취해 나가야 한다. 여러분은 알고도 죄를 짓는 종이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되는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여러분이 모르고 저질렀지만 이제 그 잘못을 고백하고 있는 모든 일들은 우리의 모임에서 우리의 모든 약점과 죄에 대해 드린 믿음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운 죄사하심을 통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사함을 받았다. 아멘.

우리 모임에서 나온 이 문서에서 밝히고 있는 거룩한 진리의 단순성 가운데 행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경계함으로써,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출교의 규율을 적용받게 될 것이며, 이제부터는 그릇된 형제자매들이 우리 가운데로 들어오는 것이 예방될 수 있을 것이다.

악한 것을 멀리하면, 주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되실 것이고, 여러분은 그분의 아들과 딸이 될 것이다.⁴³⁾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바울이 디도서에서 권고한 내용을 마음에 새기라.⁴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증함과 의로움과 경건

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을 깊이 생각하고 그 안에서 행하면 평안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이 영원히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며 높이 찬양을 받기를 바란다, 아멘. 주님이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기도한다, 아멘.

슬라이트하임에서, 주후 1527년, 성 마태의 날에.⁴⁵⁾

회중 규율 (Congregational Order)⁴⁶⁾

전능하시며 영원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자신의 놀라운 빛이 이 세상에 그리고 가장 위험한 이때에 빛고 들어오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의 신비를 깨닫게 되었다. 말씀이 주님의 적합한 질서에 따라 우리에게 설파되어,⁴⁷⁾ 이로 인해 우리가 그분의 친구로 부름을 받았다. 그러므로 주님의 명령과 그분의 사도들의 가르침에 따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질서 안에서 서로 사랑 가운데 새로운 계명을 지켜⁴⁸⁾ 사랑과 일치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전체 회중의 모든 형제자매들이 마음을 모아 지켜야 할 것들은 다음

45) 2월 24일.

46) 이 문서에는 제목이 없다. 여기 채택된 제목은 베른의 국립기록보관소의 기록물 목록에서 주어진 명칭을 반영한 것이다.

47)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의미를 지닐 수 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말씀이 우리에게 설파되어”로 해석할 수 있는데, 여기서 “ordnung”은 종교개혁과 복음설교를 불러일으키는 하나님의 사역을 가리킨다. 혹은 “하나님의 말씀이 신적인 방식을 따라 설파되어”로 해석하여, 참으로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교회질서의 회복을 강조하는 것이다. 따라서 뒤이어 나오는 “이로 인해”(whereby)는 복음설교를 말하는 것일 수도 있고 혹은 적합한 질서를 정하는 것일 수도 있다.

48) 요일 2:8.

43) 고후 6:17.

44) 디 2:11-14.

과 같다.

1. 형제자매들은 일주일에 적어도 서너 번 만나, 그리스도와 사도들이 가르치신 것을 배워 익히고⁴⁹⁾ 각자가 서약한 대로 주님을 향한 신실함을 지키도록 서로서로 마음을 다해 권고해야 한다.
2. 형제자매들이 함께 있을 때, 그들은 함께 읽을 것을 택해야 한다.⁵⁰⁾ 하나님께로부터 최고의 분별력을 받은 사람은 그것을 해설하고⁵¹⁾ 다른 사람들은 조용히 귀를 기울여, 누구라도 사적으로 속닥거려 다른 사람들을 방해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시편은 매일 집에서 읽자.⁵²⁾
3. 누구라도 하나님의 교회에서 경솔한 언행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하자. 이 교도들 앞에서도 모두가 좋은 행동거지를하도록 하자.⁵³⁾
4. 누구든지 자기 형제가 죄를 범하는 것을 보면, 그리스도가 명하신 대로⁵⁴⁾ 그에게 경고하고, 그리스도인답게 형제다운 방법으로 권고해야

49) 여기에는 아마도 복음 이야기와 가르침을 기계적으로 암기하는 것이 포함되었을 것이다. 당시 글을 아는 사람도 드물었고 성서를 소유하는 것도 무척 힘든 일이었기 때문이다.

50) 여기서 “읽기”는 해설을 포함한다. 재세례파 교회가 설립되기 전 취리히와 장크트갈렌에서 열렸던 성서연구 모임들을 가리키는 초기기 이름들 가운데 하나가 “읽기”(readings)였다.

51) “하나님께로부터 최고의 분별력을 받은 사람은 그것을 해설하고”는 모든 개개의 구절들에서 그 의미를 깨달은 사람은 누구나 거리낌 없이 이야기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의미일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고정된 지도자가 없는, 다시 말해 술라이트하임 5조항에서 요청하고 있는 “목자”의 지배적인 역할이 없는 모임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본문이 술라이트하임의 결정이 있기 전 시기에 대해 중언하고 있고, 그때는 지도자라 불리는 사람 없이 교회가 가능했다고 추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최고의 분별력을 받은 사람”은 지역 모임에서 자연스럽게 인식되고 있는 지도자를 완곡하게 표현한 것일 수도 있다.

52) 이 “읽기”는 아마도 기계적인 암송일 것이다. 이와 같은 시편에 대한 언급은 초기 재세례파들이 사적인 경건훈련에 대해 언급한 매우 드문 경우 가운데 하나이다. 이것은 수도원제도(monasticism) 유산의 흔적일 수 있다.

53) 딥전 2:8.

할 것이다. 우리 모두는 사랑으로 행해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5. 이 회중에 속한 모든 형제자매들 가운데 그 누구도 자신의 소유물을 지녀서는 안 되고, 사도들의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했듯이 모든 것을 공유하고, 특히 공동기금을 쌓아서 그것으로 가난한 자들을 그 필요에 따라 도우고,⁵⁵⁾ 사도시대에 그러했듯이 어떤 형제도 궁핍에 처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
6. 형제들이 함께 모였을 때는 일체의 폭음폭식을 피해야 한다. 수프 한 그릇이나 최소한의 채소와 고기를 제공하라. 먹고 마시는 것이 하늘나라는 아니기 때문이다.⁵⁶⁾
7. 형제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한 성만찬을 거행해서,⁵⁷⁾ 이로써 주님의 죽으심을 선포하고, 우리 각자로 하여금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주셨고 우리를 위해 보혈을 흘리셨는지 기념하도록 권고하자. 그리하여 우리 역시 그리스도를 위해, 다시 말해 모든 형제들을 위해 우리 몸과 생명을 기꺼이 드릴 수 있도록 하자.

54) 마 18:15.

55) 여기서 공동기금은 특별한 필요를 위해 모아둔 특별한 자금으로 보이고, 머지않아 모라비아에서 확립된 것과 같은 소비의 전적인 공산체제 같은 것은 아니었다. 후티파에 속하지 않은 재세례파들 역시 자신들이 초기 예루살렘 그리스도인들의 경제에 관한 모범을 따르고 있다고 생각하였다는 것은 의미심장하다.

56) 롬 14:17. 회중들이 간단한 식탁을 마련해 두고 빈번하게 모였을 것이라는 가정은 그들이 사회적 친교모임이나 길드회합을 삼갔을 것이라는 사실과 연결될 수 있다(4조항).

57) 성만찬이라고 특별히 규정된 경우, 그것은 형제들이 함께 나누는 다른 식사들과는 명백하게 구별되었다. 비록 그 둘 다 형제들이 모이는 대로 가능한 한 자주 시행되었다는 점에서는 마찬가지지만 말이다.